ELIO'S LITTLE DISCOVERIES

The Same Rain

같은 비 · 두 사람의 말 비교하기



10세 · Day 041 · 함께 읽기 · 4장면



Rain began before breakfast. It tapped the window and ran down the glass in long, clear lines. Bori pressed her bill to the pane and sighed. Today was the day they had planned a picnic by the pond.



“It is raining,” she said. “The bread is ready, the blanket is ready, and the rain does not care about our picnic.” Elio looked out too. The garden had turned grey and soft.



Mum came in with wet boots and a basket of beans. “Listen,” she said. “That is the best sound of the week.” She opened the door and let the rain smell into the kitchen.



“Best?” said Bori. “It is wet and cold, and it has spoiled our day.” Mum set down her basket. “My beans are in the ground,” she said. “They were waiting for this.”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비 내리는 창과 식탁을 함께 보고, 비 오는 날 좋아하는 것과 싫은 것을 하나씩 말해 봐요.

함께 읽을 때

엄마의 말과 보리의 말을 번갈아 짚으며 읽어요. 두 사람이 같은 비를 보면서 무엇을 각각 생각했는지 찾아봐요.

생각 나누기

엄마는 왜 비가 반가웠나요? 보리는 왜 속상했나요? 둘 중 한 사람만 맞다고 정하지 않고, 각자의 이유를 원문에서 하나씩 찾아봐요.

생활에서

오늘 날씨를 함께 보고, 같은 날씨를 좋아할 사람과 싫어할 사람을 생각해 봐요. 아이의 느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먼저 들어 줘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